



새정부와 함께 국민과 어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추진기로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 성료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월 7일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과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고 정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비상임 이사 선출은 이사장에게 일괄 위임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올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업기반을 선도하는

어업인의 파트너라는 미션아래 경영목표 389억원 규모의 수지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어항의 안전성 제고 및 부가기능활성화 △어장의 친환경 지속성장 확보△신 어촌문화 창달 △선진적 경영 인프라 구축 등 4개 목표도 설정했다.

이날 박철수 수산정책실장은 장관 치

사를 통해 “새 정부 출발과 함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재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맘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어업인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행복한 수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관련기관, 단체, 어업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노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어촌·어항법 개정에 맞추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새로운 정부와 발 맞추어 바다를 사랑하는 국민과 바다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촌어항어장 발전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20일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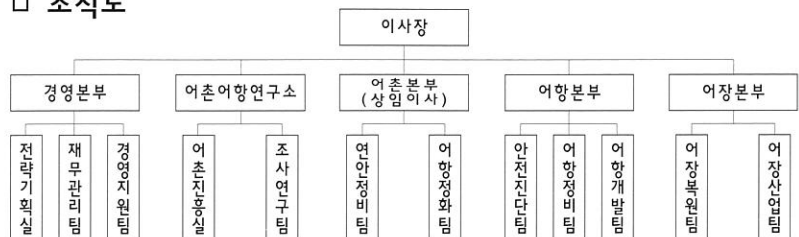
이번 직제 개편은 종전의 회장, 전무이사 및 4본부 2실에서 전무이사를 폐지하고, 2실을 본부로 편입하여 4본부 1연구소로 개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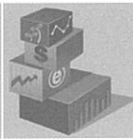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어항전문 엔지니어링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촌어항연구소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부활과 더불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어촌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어촌

본부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장 명칭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 조직도





제2회 어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 어항청소선 현장 점검

한국어촌어항협회 방기혁 이사장은 4월 1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회 어업인의 날'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 및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수산단체회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바다에서 희망을, 어촌에서 행복을'을 주제로, '꿈꾸는 산대'가 펼쳐지는 풍어 한마당과 특별전시장 관람 등 1부 식전행사와 2부 기념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 협회 나승진 전략기획실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후 방기혁 이사장은 통영으로 이동하여

어항905호를 순시, 선박의 장비성능 등을 점검하고 승선원들을 격려했다.

어항·어장 등 바다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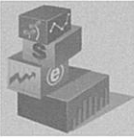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살리기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방기혁)는 2월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바다살리기운동본부(총재 조정제)와 바다환경보전 및 풍요로운 어촌·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협회는 바다환경보전을 위한 범국민 실천사업과 바다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 바다·어촌 지역의 사회공헌 등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에 앞서 '해양자원과 녹색성장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조정제 총재의 특강도 있었다.



2012년 창원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완료

창원시 연근해 432ha 환경개선 및 침적폐기물 55톤 수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012년 창원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지난 3월 8일에 완료했다.

총사업비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은 창원시 연근해 432ha의 면적에서 55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원시 연근해의 침적폐기물(폐어구, 유실어구 등) 수거를 통한 바다환경 개선과 폐어망으로 인한 어·패류 폐사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유용수산물 자원 회복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거작업 착수 전 안전작업 결의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작업

2013년 어항청소선 운영관련 업무협의회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월 2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방기혁 이사장을 포함 어항청소선 승선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어항청소선 운영관련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2013년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월 2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